

건강의료



인공관절 재수술(재치환술)

세계로병원 2정형외과 박상진 원장



감염·마모·골 용해 등 원인 증상 없어도 정기검진 필수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방법인 '인공 슬관절(무릎) 치환술'은 탁월한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을 얻을 수 있어 현재 국내에서도 연간 4만건 정도 시행되고 있다.

일부 전문의들은 인공 관절은 한번 시술하면 수년 사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 20년 이상 장기간 쓸 수 있다고 선전(?)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10년 이상 멸정한 경우도 정말 보기 어렵다.

의한 2단계 재 치환술 ▲폴리에틸렌 마모(인공관절 사이에 플라스틱이 닳아지는 것) ▲골 용해(인공관절과 뼈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것) 등이다. 불안정성이나 폴리에틸렌의 탈구 등은 비교적 적은 빈도의 원인이다.

◇치환술의 실패 예방하기=치환술에 따른 감염은 사실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많아 특별한 예방법을 제시하기 어렵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몸 상태를 갖는 것이 중



70세 여성 환자가 7년전 서울 모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을 했다. 방사선 촬영 상 안쪽 폴리에틸렌이 마모돼 관절 간격이 비대칭으로 변했다.(왼쪽) 이에 따라 인공 슬관절 재 치환술 시행으로 관절간격의 대칭성 및 위·아래 뼈의 정렬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켰다(오른쪽).

감염예방·면역력 유지... 당뇨·만성질환 체계적 치료

인공관절 수명 단축 조그려 앓기·무릎꿇기 피해야

이상 장기 사용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실제 국내 정형외과 관련 학회지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10년 이상 장기 추시(추후 진찰·병원 방문)된 인공 슬관절 치환술의 결과를 보고한 논문은 단 2편에 불과하다.

◇인공 슬관절 치환술 재수술의 원인=인공 슬관절 치환술 수술이 많이 시행되는 것에 비해 최근 재수술(치환술)의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1차 인공 슬관절의 임상 결과가 비교적 만족스러운 것에 비해 재치환술의 결과는 관절 운동의 범위, 통증 감소, 일상 생활에의 복귀 등에서 더 나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수술자가 늘어나고 있다.

재수술의 원인과 예방법 그리고 수술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재 치환술의 원인(처음 시행한 인공 슬관절의 실패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감염에

요하며 특히 당뇨,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체계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사소할 수도 있지만 치과 치료나 스케일링 등 간단한 시술 전에도 의사에게 인공 슬관절 치환술 사실을 알리고 예방적 환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 것 아닌 것 같은 요로계의 감염이나 피부에 생긴 감염(종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감염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 치환술의 예방은 비교적 간단하다. 바꾸어 말하면 그 원인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환자가 너무 무리하게 써서 빨리 닳아지든지 아니면 의사가 수술시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를 잘못 맞춰놓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인공 슬관절 수술을 한 사람은 서구식 생활 습관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앉는 동작, 혹은 조그려 앉는 동작, 눈·발사 등이 많은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조금 불편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동작들은 인공관절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해

도, 아무리 수술 재질이 발달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러한 동작을 10년 이상 견딜 수 있는 인공관절에 대한 보고는 단 한건도 없다.

◇성공적인 인공 관절 수술을 위해서는 가장 큰 핵심은 다른 아닌 수술의사이다. 환자들이 보았을 때 잘된 수술이란 수술 시간이 짧고, 수술 후 출혈이 적으며 다리가 반듯하고, 관절운동이 잘되며 통증이 적은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는데, 이는 정확한 절제 및 인대와 관절간격의 균형으로 귀결된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로봇 수술, 컴퓨터 항법 장치 등을 이용한 수술, 환자 특이 장치인 예방법이다. 현실적으로 인공관절을 장기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기적인 추시(병원 방문)이다. 왜냐하면 아주 초기의 인공관절 문제는 대부분 복잡한 수술을 하지 않고도 간단히 플라스틱 교체만으로 충분히 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수술이 간단히 플라스틱 교체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사가 일차 수술을 잘하고(균형과 정렬을 잘 맞춘 수술), 환자가 조기에 병원에 와 준다면 가능한 절제 및 인대와 관절간격의 균형으로 귀결된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로봇 수술, 컴퓨터 항법 장치를 이용한 수술, 환자 특이 장치인 예방법이다. 현실적으로 인공관절을 장기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기적인 추시(병원 방문)이다. 왜냐하면 아주 초기의 인공관절 문제는 대부분 복잡한 수술을 하지 않고도 간단히 플라스틱 교체만으로 충분히 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 예방법이다. 현실적으로 인공관절을 장기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기적인 추시(병원 방문)이다. 왜냐하면 아주 초기의 인공관절 문제는 대부분 복잡한 수술을 하지 않고도 간단히 플라스틱 교체만으로 충분히 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수술이 간단히 플라스틱 교체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사가 일차 수술을 잘하고(균형과 정렬을 잘 맞춘 수술), 환자가 조기에 병원에 와 준다면 가능한 절제 및 인대와 관절간격의 균형으로 귀결된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로봇 수술, 컴퓨터 항법 장치를 이용한 수술, 환자 특이 장치인 예방법이다. 현실적으로 인공관절을 장기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기적인 추시(병원 방문)이다. 왜냐하면 아주 초기의 인공관절 문제는 대부분 복잡한 수술을 하지 않고도 간단히 플라스틱 교체만으로 충분히 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와 의사에 의한 인공관절 실패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기본은 경험이 많은 의사가 수술을 잘하고, 환자가 조심해서 쓰는 것이지만 이는 너무나 피상적

진료실 안내·의료정보 원터치로 'OK'

전남대병원, 전자계시판·스마트 QR코드 등 최첨단 시스템

#. 한 대학생이 1층 로비에 있는 종합 안내시스템 기계 앞에 서 있다. 친구의 입원실을 찾기 위해 모니터의 해당 검색키를 계속 누르자, 병동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위치도가 표출된다.(사진) 1~2층 계단 쪽에 조성된 갤러리를 둘러본 뒤, 갤러리 위쪽 벽의 대형 미디어아트를 보면서 병실을 찾아갔다. 그리고 승강기 옆에 부착된 QR코드를 발견,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자 바로 병원 홈페이지에 연결돼 이용안내와 진료일정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도록 화살표로 표시해 준다.

▲대형멀티터전=로비 한쪽 벽에 55인치 모니터 15대를 묶어 대형모니터 역할을 하고 있는 홍보시스템이다. 로비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환자와 내방객들이 쉽게 볼 수 있어 병원의 각종 홍보자료를 모두 표시시키고 있다. 특히 의료진의 진료일정과 주 1동 핵의학과 쪽 승강기 앞에 55인치 모니터 2대를 4분할 해서 운영하고 있다. 게시판 내용은 30초마다 바뀌어 진다.

▲외래 대기실 대형모니터=55인치 모니터로 외래 대기실에 설치됐으며, 환자들의 대기순서와 대기시간 등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질병 정보·교수소개 등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TV시청도 가능하다.

▲원무과 지능형 순번대기표=환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접수 또는 입퇴원 수속을 밟을 수 있다. 먼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병원등록번호, 바코드를 대기표에 입력하면 원무과에서 환자의 병원 정보를 바로 확인 후 원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지능형 순번대기표를 이용하면 동병이인의 혼선을 피할 수 있고, 예전처럼 환자를 호명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졌다.

▲승강기 지능형 TV=승강기 13곳에 설치해 병원 홈페이지 내용과 실시간 뉴스, 중앙일간지 소식, 의학 연례뉴스 등을 표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승강기 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어 홍보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 QR코드 운영=첨단휴대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각종 병원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승강기 옆, 외래대기실, 원무과 창구 등 250여곳에 QR코드를 부착해 병원 이용안내와 진료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베트남 의료시장 개척

하노이시 탄남병원·호치민시 115인민병원과 MOU

화순전남대병원(병원장 국춘)이 신한류 붐이 한창인 베트남 의료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신경외과 정진 교수와 장우열 교수, 위장관외과 박영규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이 지난 13일~18일 베트남을 방문했다. 이들은 양과 뇌종양 분야의 최신 의료기술을 소개했다.

화순전남대병원 방문단은 하노이시 탄남병원, 호치민시 115인민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정부관

리외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세미나를 가졌다. 현지의 암과 뇌종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도 실시했다.

정진 교수는 뇌종양 첨단수술이 가능한 감마나이프를 이용해 뇌세브 손상없는 시술로 이를 높여야 하는 암 수술장면을 담은 영상이 미국 북강경외과학회 우수비디오로 선정될 만큼 명성을 얻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병원 측은 지난해 1월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호치민 의학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지난해 9월에는 나눔의료 차원에서 마이 푸엥 광(6)양을 초청해 무료 뇌종양수술을 해준 바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진료처장 정진 교수는 "국내 국립대병원 최초로 JCI 국제인증 획득한 안전·친절병원이자 쾌적한 전연도시에 자리잡고 있는 친환경 병원이라는 입소문이 해외에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며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국제네트워크를 개척해 해외환자를 적극 유치하고, 글로벌 병원으로서 경쟁력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ankook Land Development Co., Ltd. (한국공인중개사)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Namyeong Gangbyeon-dosil (남평 강변도시) featuring a new development projec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olom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I-Real Estate (이지공인중개사) featur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Landpia Real Estate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급매 상가/원룸) featuring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가은 공인중개사)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대인동삼일부동산) featuring real estate listings and contact information.